

한국 양궁 단체전 3종목 결승행...안산 '다관왕 한번 더'

안산·김우진 혼성전 4강서 일본 꺾어 세계선수권 단체전 싸늘이 준비 끝 내일 결승전...도쿄 영광 재연 기대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혼성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5-1로 물리친 안산과 김우진. /연합뉴스

한국 리커브 양궁이 2021 세계선수권 단체전 3종목 싸늘이 준비를 마쳤다.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정주시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사활제 혼성 단체전(혼성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5-1(37-37 38-36 39-37)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산-김우진 조는 터키를 제압하고 올라온 러시아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안산과 김우진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한국 양궁은 혼성전이 처음 도입된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6개 대회 연속으로 이 종목 금메달을 독식한다.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결승 승진보가 이어졌다. 두 팀 모두 첫 세트를 내주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는 안산과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로 이뤄진 한국이 프랑스와 슛오프 접전 끝에 5-4(53-57 51-54 54-53 55-53 <28+-28>)로 이겼다.

스�오프에서 양 팀 점수 합계가 28점으로 같았지만, 장민희가 쓴 화살이 과녁 중심부에 가장 가깝게 꽂혀 한국이 결승행 티켓을 확보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장민희의 화살과 프랑스 선수 화살의 차이가 '갯잎 한 장 두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여자 대표팀은 브라질에 6-0(53-51 57-49 55-51)으로 이긴 '난적' 멕시코와 결승에서 맞대결한다.

여자 대표팀은 2017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4년만의 단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안산은 이번에도 혼성전과 단체전 결승에 올라 또 한 번 '다관왕' 등극을 눈앞에 뒀다.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 김제덕(경북일고)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에서 대만을 6-2(53-57 57-52 56-51 57-56)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남자 대표팀의 결승 상대는 '태극궁사 킬러' 브래디 엘리슨이 버티고 있는 '속적' 미국이다.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2015년 코펜하겐 대회 이후 4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다.

한국 리커브 양궁은 지난 2019년 스페르토호벤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혼성전에서만 1개 따내는 데 그쳐 올해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강 한국 양궁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하지 못한 것은 1987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금메달 0개) 이후 32년 만의 일이었다.

혼성전과 남녀 단체전 결승은 한국시간으로 25일 새벽 열린다.

한편, 컴파운드 남녀 대표팀은 각각 8강과 16강에서 탈락했다.

컴파운드 혼성전에서는 김종호(현대제철)와 김은희(현대모비스)가 준결승에서 인도에 156-159로 저 동메달을 겨냥하게 됐다.

김종호는 대회 혼성전 4연패가 불발됐다.

김종호와 김은희도 25일 새벽 덴마크와 3위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연합뉴스

광주아시안컵 때 김우진과 혼성전 호흡 안산 "그 때보다 호흡 더 잘 맞아"

"그때보다 더 호흡이 잘 맞네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양궁 3관왕의 대업을 이룬 안산이 2021 세계선수권대회 다관왕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산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사활제 리커브 혼성 단체전(혼성전) 준결승에서 김우진(정주시청)과 함께 일본을 5-1로 물리쳤다.

강채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와 함께 나선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도 안산은 승리를 맛봤다.

첫 세트를 내줬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 슛오프까지 간 끝에 프랑스에 5-4로 이겼다.

대표팀의 '둘째 언니' 장민희의 슛오프 한 발이 승부를 갈랐다.

24일 혼성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단체전 결승에서 멕시코를 이기면 안산은 도쿄올림픽에 이어 2개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다관왕에 오른다.

안산은 경기 뒤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단체전에서 언니들이 잘 이끌어줘서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다.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쿄올림픽 전에 열린 광주 아시안컵에서 김우진과 함께 혼성전 합을 맞춰본 바 있는 안산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호흡이 잘 맞다고 느껴져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안산은 "개인전은 욕심은 없지만 해서 운이 따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주 연속 우승 도전 고진영 "공격적 플레이 할 것"

LPGA 아칸소 챔피언십 내일 개막



지난주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한 고진영. /연합뉴스

고진영(26)이 2주 연속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우승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진영은 25일(한국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리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주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하며 LPGA 투어 시즌 2승, 통산 9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23일 LPGA 투어 인터뷰에서 "우승하고 텍사스에서 여기서 차로 이동해서 왔다"고 말했다.

이날 프로암 대회를 뛰면서 "지난주의 샷감을 이어서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고진영은 "대회 전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계획을 잘 짜서 연습하겠다"고 했다.

아칸소 챔피언십은 4라운드와 3라운드 만에 끝난다.

고진영은 "아무래도 3일 대회와 4일 대회는 경기 운영 계획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선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나 또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략을 밝혔다.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유소연(31)은 AIG 여자오픈에서 시즌 첫 탈락을 한 이후 약 한 달의 휴식기를 갖고 이번 대회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유소연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3주 정도 시간을 보냈다.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강화 운동을 많이 했고, 사촌 언니의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오기도 했다"며 휴식기를 돌아왔다.

2주 정도 클럽에 손대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은 풀퍼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새겼다는 유소연은 스윙도 가다듬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스윙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공을 많이 치면서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며 "지난주 코치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스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좋은 해결책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마이어 LPGA 클래식에서 통산 6승(메이저 2승)을 달성한 후 우승이 없는 유소연은 "이 대회는 3일 경기나 4일 경기를 떠나서 내가 가장 즐기는 대회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유소연은 앞으로 5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US여자오픈과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메이저 우승 경험을 쌓은 유소연은 AIG 여자오픈, 에비앙 챔피언십,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등 다른 메이저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고, 2024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싶다는 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민유라(오른쪽)와 이튼

아이스댄스 민유라-이튼 베이징올림픽 못 가나

이튼, 한국 국적 아직 취득 못해

한국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간판 민유라(26)-대니얼 이튼(29)조가 2022년 베이징동계 올림픽에 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3일 "미국 국적의 이튼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베이징올림픽 출전선수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까지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하면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엔 선수 국적과 팀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주최하는 피겨스케이팅 대회 아이스댄스 혹은 페어에서는 짝을 이룬 두 선수 중 한 선수의 국적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올림픽은 다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였던 민유라가 미국 국적을 포기했고, 파트너였던 알렉산더 겸린은 법무부의 특별귀화 심사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튼이 베이징올림픽에 한국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선 개막 전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한다.

다만 민유라-이튼 조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 네벨혼 트로피 대회엔 정상적으로 출전한다.

두 선수는 24일(한국시간) 독일 오펜스트도르프에서 열리는 아이스댄스 리듬댄스에 나서고 26일 프리댄스에서 최종 순위를 가린다.

민유라-이튼 조가 상위 4위 안에 들면 한국은 베이징올림픽 아이스 댄스 출전권 한 장을 얻는다. 한국은 한국 국적의 다른 조를 베이징올림픽에 파견할 수 있다.

민유라가 한국 남자 선수와 새로 짝을 이뤄 올림픽에 출전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일단 네벨혼 트로피 대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면 내부 회의를 통해 출전선수 선발에 관한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보이스
2관	보이스, 모가디슈, 인질 나의 흑역사 로맨티카
3관	상처와 텐 링즈의 전설
4관	기적
5관	기적
6관	보이스
9관	캔디맨
7관 씨네커풀	캔디맨, 모가디슈, 말리그먼트 국장만 꿈꾸는 것일까? 격돌! 낙서왕국과 알주네 영의시대
8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싱크홀 극장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극장판 마이 리틀 포니: 새로운 희망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2021.09.24(금) 11:00AM

2021.09.24(금) 11:00AM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8237